

나는 귀여운 손자 손녀들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들의 티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난로처럼 따뜻한
마음들이 나의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안겨오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현정이는 이제 겨우 여섯살이고 그에게는
생일이 다섯달 늦은 외사촌 남동생이 있다.
해별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친척들이 함께 국수 먹으러 랭면집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현정이는 동생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고 꼭 쥐고 다니었다. 식당에 이르러서는
저가락을 챙겨주기도 하고 맛있는 요리들을
집어주기도 했다. 누나가 학교에 가서 식당에
오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갈 때 누나가 좋아하는
요리를 챙겨왔다. 여섯살이면 응석을 부릴
나이인데 동생과 누나를 챙기는 현정에게 크게
감동받았다.

준이는 올해 일곱살인데 그에게는 세살되는
남동생이 있다. 아빠는 화가로서 자주 출장
가고 엄마가 집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돌보는데
어린 손이가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엄마가
집일을 할 때면 준이가 동생을 돌보는데 동생이
울고 보채도 하나도 화내지 않고 인내성있게
달래준다. 가끔 친구들이 밖에서 뛰노는 소리가
집에까지 들려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놀고픈 맘을 꼭 잡고 동생을 데리고
놀았다.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여 같이 국경절을
즐길 때 준이는 어린 동생이 셋이나 되어 돈을 많이
벌어야

[수기]

귀요미들이 주는 반성

겠다고 해서 우리들을 한바탕 웃게 했다.

지민이는 이제 겨우 열살이지만 너무도 어른스러워 그 나이를 의심하게 된다.

어느 날 지민이네 집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놀러 와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지민이는 어머니를 말뚱말뚱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나 이제 장가가면 자는 칸이 한칸인 집을 사겠습니다.”

“왜?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에서 자니?”

“바닥에서 자면 되지. 어머니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바닥에서 자게 했잖아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바닥이 편편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바닥에 전기요를 깔았기에 바닥이 침대보다 더 따뜻하다.”

“침대에도 전기요를 깔 수 있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침대에서 자게 해야 커서 장가간 후 자는 칸이 두개인 집을 사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똑같은 침대에서 자게 하겠어요.”

나는 시조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지민이가 무척 대견스러웠다.

어릴 때 나도 우리 귀요미들처럼 참으로 착하고 따뜻했다. 언니와 오빠들의 자랑스러운 동생이었다. 언니, 오빠들이 온 하루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힘들어하면 그들이 시키는 작은 심부름을 군말없이 잘해주고 나의 애고사리같은 손으로 하루 일에 지친 잔등을 두드려주곤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지천명을 넘어서부터 나는 자기 작은 가족 밖에 모르는 리석한 동생으로 변해버렸다. 나의 머리속에서 언니와 오빠들보다 내 작은 가정이 일순위가 되었다. 형제들은 남편과 딸의 뒤로 밀려났다. 언니와 오빠들은 인젠 나에게 가족이 아닌 친척으로 떨어졌다. 언니와 오빠들이 어려움에 부딪치면 도와는 주지만 열정이 부족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금방 신을 신었는데 많이 아픈 둘째언니가 갑자기 내가 한 마른가지 밀반찬이 먹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신을 벗고 다시 주방에 들어가 가지 밀반찬을 해서 갖다주긴 했지만 출근한 상태에서 자게 하겠어요.” 나는 시조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 김경희

말을 늘 둘째언니네 집에 맡기곤 했는데 그런 은혜는 갚고 싶었다. 그리고 중풍 맞은 큰언니가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주었는데 퇴원한 후에는 혼자서 걸을 수 있으니 그저 드문드문 전화를 할 뿐 별로 찾아뵙지 않았다.

어느 날 큰언니가 가끔 펜티에 오줌을 묻힐 때가 있는데 작은 생리대를 사오라고 했다. 토보로 살 수 있는데 나를 심부름 시키는 큰언니가 싫었다. 나도 요새는 오른 다리가 많이 아파 층계를 오르내리기 많이 힘든 데 말이다. 그렇다고 큰언니에게 못 가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나는 생리대 외에 큰언니가 많이 즐겨 먹는 것들을 두 손 가득 무겁게 들고 큰언니네 집으로 갔다. 큰언니는 친구 만나러 가고 큰언니만 집에 있었는데 큰언니는 그렇지만 반가워했다. 원래 말이 적은 큰언니인데 그날만은 말이 많았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큰언니가 전화해서야 큰언니를 불러 온 것이 미안하고 죄송했다. 큰언니는 생리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화하고 싶어 전화했던 것이다. 귀요미들을 보며 어릴 때의 내가

그렵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동년에서 40 여년이나 멀리 왔으니 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도 자사자리하게 변한 내가 가끔은 싫다.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이 타성에 있으니 형제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막내인 내가 언니와 오빠의 든든한 지팽이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 배역을 밀어내려고 애쓰니 얼마나 한심한가!

그리고 두렵다, 백지장처럼 티없이 깨끗하고 불해살처럼 따뜻한 귀요미들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처럼 무성계 변해버릴까봐. 어린 우리들처럼 깨끗한 귀요미들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음속의 오물들을 하루빨리 깨끗이 씻어버리고 햇빛에 잘 말려워 보송보송한 맘으로 귀요미들의 티없이 순수한 마음을 수호자로 되어야겠다. 어쩐지 두 어깨가 무겁다.

새해에는 어릴 때 언니, 오빠들을 따르고 좋아하던 것처럼 사심없이 형제정을 나누려다. 철부지 나를 귀여워만 하고 꾸짖을 줄 모르는 언니, 오빠에게는 보다 따뜻한 동생으로 다가가려다. 웃음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어린 손자 손녀들과 젊은 조카들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내 인격과 인품을 한보 승화시켜야겠다는 각성을 해본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한다. 우리 어른들이 손에 손잡고 생물처럼 티없이 깨끗하며 봄날의 태양처럼 따뜻한 귀요미들의 심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파리와 새각시 (외 2수)

■ 석문주

귀울안 바자 굵에 모퉁하게
호함지게 자랐네요

팔처럼 뻗은 줄기마다 대롱대롱
술한 보자기를 달았네요

그 보자기를
살짝 열었어요

노르스를 동그란 것 달렸으니
꼭 마치 태동의 자궁 같아요

꼭지를 따고 구멍 내니
절끔 ‘양수’가 쏟아지네요

씨앗을 꺼내 종자로 받아놓고
공기 주입하고 입안에 넣었어요

그다음 막달 아이 들으라고
열심히 불고 불었어요

무궁한 생명의 힘이
막 터지는 소리예요

파죽! 파죽!...

나팔꽃 선녀들이

막장구름 물려오던 날
외로운 시골 사나이
집뜨락을 배회하다 보았습니다

전보대의 당김줄 타고
얽히고설킨 푸른 넝쿨들이
수많은 나팔꽃 달고서
칭칭 갈뚝머 기여오르고 있었습니

나팔꽃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원추형으로 빙 두른
분홍빛 보라빛 치마폭이며
복판에 맛있는 북채 모양의
하얀 노란 꽃술이며...

불현듯 사나이 눈앞에는
신비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늘엔 비스듬히 바늘이 드리우고
화려한 치마저고리 입은 선녀들이
물구나무 자세로 긴 다리 뻗고
바줄 따라 사뿐사뿐 하늘 뚫으며
뜨락으로 내려옵니다...

고독을 감내중인 사나이
얼었던 마음 스르르 풀립니다
이윽하여 마구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문득 불길한
비꼬치 바람 불어옵니다

오 천둥이여 제발 울지 말아다오
황홀한 세상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머물러 있겠스라...

배나무

너의 웃음
무수한 잎새로 만들어졌다

가을이 오니
몸에 품은 귀중한 결실들을
세상에 주저없이 바치고
속스러운 듯
단풍든 웃을 망설이다가
한잎두잎 벗기 시작한다

겨울품에 안겨 혹독한 사랑 나누면
이제 또 둥근 희망을 몸에 배겠지

사랑에 급한 겨울은 멀리서 먼저
맴똥 추위를 날려보내며
배나무 탈의를 돕는다

그런데 배나무는 웬일인지
마지막으로 남겨둔 한잎을
바람에 팔락이며
무언의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낸다...

드디어 눈보라를 일으키며
겨울랑군 성큼 다가올제
배나무는 그제야 하늘 우러러
그 한잎을 마저 떨어뜨려 버린다

한점 부끄럼 없이
사랑을 맞는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을 도와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생면
부지인 누구한테서 도움을 받고도
이름도, 주소도 알지 못할 때의 그
아쉬움은 정말 가슴 쓰리고 안타깝다.
내가 직접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할 때
마다 마음은 마냥 설레인다...

작년 9월, 나는 안해와 함께 항주에
살고 있는 딸집에 놀러 갔다가 국경절
휴가 시작되자 딸 식구들을 데리고
하문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오후 2시 반 고속철을 타고 하문에
도착하니 저녁 7시 반이 되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역광장은 환한 불빛으로
황홀경이었지만 우리는 멋진 야경도
감상할 새 없이 예약한 호텔에 짐을
풀고는 저녁식사를 대충 마치고 곧바로
침대에 쓰러졌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웬일인지 배가 드문드문
아파났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꼭 참고 견디려고 하였으나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침
오전에는 호텔에서 쉬다가 오후에
쇼핑하려고 약국을 잡은지라 나는
집식구들이 근심하고 초초해 할까와
아픔을 참으면서 짐짓 태연한 모습으로
소풍하러 간다면서 빠져 나왔다. 조용히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복무원과 문의한 후 알려준
주소대로 부근에 있다는 병원을 찾으려고
나섰다.

거리에서 나서는 초행길이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

[수기]

드리지 못한 꽃송이

■ 태승호

었다. 마침 삼십대 초반으로 짐작되는,
몸매가 균형이 잘 잡히고 어여쁘게
생긴 젊은 여인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넌은 세살 쯤 되어보이는 어린아이를
품고 안고 뺨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다시 한번 병원을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넌은 자기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나를
데려다주겠다는 것이었다. 넌의 상냥한
말소리에 착한 마음씨가 돋보였다.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고 나서 넌의
얼굴을 살펴보았더니 그녀의 눈빛에는
선의와 열정이 넘쳐나 있었다. 그 순간
한줄기 파사로운 해빛이 내 마음속의
아픔을 어루쓸어주는 것 같았다.

뺨스를 기다리는 사이에 이말 저말
주고받으면서 그녀는 레이가 밝고
쾌활한 성격임을 보여낼 수 있었다.
넌은 자신은 유치원 교양원인데 매일
아이들을 위해 음식물을 준비해야
하며 또 아이를 하교시키는 책임도
맡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비록 하는
일이 힘들지만 자신은 매일 즐거운
기분으로 언제나 미소를 지

으며 부드러운 언어로 아이들과
교류한다고 말했다. 넌의 높은 책임감과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 나는
탄복을 금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뺨스가 천천히
와서 멈춰섰다. 차문이 열렸을 때
차안을 들여다보니 이미 사람들로
꼭 차서 더 오를 수가 없었다. 이때
넌이 나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조금도
망설임없이 나에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택시 타고 갑시다.”
나는 얼떨결에 넌과 함께 택시에
올랐다. 차안에서 알려주어서야 나는
그녀가 조금해하는 이유를 알았다.
나의 얼굴 기색이 좋지 않음을 보아
아내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났다는
것이였다. 나는 생면부지인 넌의 관심과
열정에 가슴깊이 온기를 느꼈다.

택시는 5분간 달리더니 갑자기 길
목에서 멈춰서는 것이였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 십자거리를
지나 200미터 더 직행하면 도착해요.”
넌은 나에게 병원 방향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택시값을
치르려고 호주머니에서 10원을 꺼

내 넌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받을 수 없다면서 한사코 나의 손을
뿌리치며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였다.

“나는 단지 힘이 닿을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확고한 목소리가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역시로 그녀의 손에 돈을 쥐여 주면서
인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을
저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는 아픔이 좀 뜸해지자 재빠른
걸음으로 십자거리를 지나 앞만 보고
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련속 달려오는
경적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머리를
돌려보니 택시가 이미 길옆에
급정거했고 누군가 차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올라타라고 하는
것이였다.

택시에 앉은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만 어안이 병병해지고 말았다.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왔던 그
넌이 아닌가! 너무도 뜻밖이어서
당황해한 나는 어쩔바를 몰랐다.
나는 인츄 택시에 올라 그녀와
물어보았다.

“아니, 왜 또 왔어요?”
“아저씨가 길을 잃을가봐 근심스러워
다시 왔어요.”

순간, 나의 가슴속에서는 고마움의
물결이 사품치며 흘렀다. 세상에 어찌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고 세심하고
책임성이 강한 넌이 있단 말인가!
남을 먼저 배려하는 넌의 친절
한 마음 앞에서 나는 그녀가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그런데 택시가 떠나서 불과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또 길가에
멈춰서는 것이였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서 내리세요.”
그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나는 말문이 막혀서 뒤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어서 내리라고 눈시늉을
하는 것이였다.

나는 인츄 차에서 내린 후 너무
고마운 마음에 다시 한번 짐심으로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점
점 멀어져가는 택시의 뒤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올랐다. 번거로움도

봄날의 언덕에서 (외 2수)

■ 김학송

살진 해살이 언덕에서 뛰놀며
잡자는 어린 풀을 불러 깨운다

구름이 살며시
어깨 위에 내려앉아
남쪽 나라의 온기와
그 온기에 취해버린
내 님의 기별을 전해준다

바람이 새 노래 부르는 양지에서
여기까지 오노라
지쳐버린 내 인생이
잔잔히 울리는 물소리 베고 누워
해바라기를 한다

겨울산

하얗게 눈 뜨고 잠자는 산
벗나무 황철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할배의 무훈담이 걸어나온다

그해 그 계곡 그 산정에서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지금 쯤
어느 넌의 가슴에서
울고 있는지?

우줄우줄 일어서는 산이
자꾸만 오라고 나를 부르는데

제 이름도 번듯이 걸여놓을
한그루 나무조차 없는 나는
추운 노래를 마시며
콩크리트 바다 속에 몸을 숨긴다

길 위에서

길은 책이다
나는 날마다
길을 읽는다

지나간 세월이 모두
길 위에 모여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길 위에 계신다

길의 표정이 어두우면
나의 하루엔 비가 내리고
길의 얼굴이 밝아오면
나의 인생엔 꽃이 핀다

길은 책이다
나는 날마다
길을 읽는다

